

# 비구니스님 위상제고·재가 참여확대

## 교육

14일 제 31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토론에서 종하스님과 법장스님은 승려교육에 대해 전통교육 방식과 현대 교육 방식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려 기본교육체제와 관련해 종하스님은 "기본교육의 주체인 본사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종단 차원에서 교육체제 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전통 강원과 기초선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기본교육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체제를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 만큼 승가의 전문성과 사회를 계도하기 위한 승려양성의 두 조건을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승려기본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은 원인을 묻는 질문에 종하스님은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현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데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반면, 법장스님은 "승가대학이나 동국대에 사이버대학을 설치하는 등 체계를 세우고 전문성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종하스님측 패널리스트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훈스님의 종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과 관련, 법장스님은 "종교지도자로서, 불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며 "강원의 교육과정 연구와 강사, 교수의 연구지원 확대 등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행·포교 분야

수행 및 포교 분야는 두 후보 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 질문에 초점이 모아졌다.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법장스님은 "불교 신앙의 전반적 위기 상황이 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 맞는 신앙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종훈스님의 질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방편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질적인 변화 없이 양적 변화만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와 조계종 중앙승가대(회장 백창기) 주최로 14일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총무원장 후보 종하·법장 스님과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사회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자로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훈·종광 스님, 차차석 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최연 중앙승가대 사무총장이 나섰다.

## 총무원장후보 정책토론 지상중계



◇종하스님



◇법장스님

한다면 위선적 불교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개혁회의 부의장 등을 지낸 종하스님은 "종무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수행이나 포교가 모자라다는 우려가 있다. 정책으로 제시한 국제화·인터넷 포교의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종광 스님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해서는 특히 불교계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법장스님은 "북한의 핵 개발엔 반대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째 미뤄지고 있는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종하스님) "종교적으로 환영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신중해야 한다" (법장스님)며 두 후보 모두 즉답을 피했다.

## 종하 수행환경 침해 사전 차단 주력

## 법장 인사권 이양 중앙·지역 균형발전

의 질문에 "이제는 국제화에 눈을 떠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종하스님은 "우리 것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렸을 때 우리의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좁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 불교계의 교류에 대해서는 기본 인식을 같이 했다. 종하스님은 "한반도

## 종무 행정

종무행정 분야에서는 인사·발령권, 비구니부 신설, 재가불자의 종무행정 참

## 사회·문화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산 관동도로, 천성산 고속철도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수행 환경 침해 문제를 비껴갈 수 없었다.

종하스님은 "불교계가 이런 정보에 너무 어둡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하스님은 "앞으로도 어떤 사찰환경 파괴행위가 있을지 예측불허"라며 "정보를 미리 수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자연도 생명이고 불성도 생명이다. 자연도 한 생명이니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수행 환경 보존을 위해 북한산, 천성산, 금강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관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종하스님은 "중단 안팎의 유능한 분들과 협의해 불교계 10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고 법장스님은 "대정부 관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권형진 기자

두 후보 정책토론회를 보고...

## 원론적 답변...차별성 부각 미흡

### ■분위기

98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후보자 합동토론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였지만 당시 토론회가 일부 후보가 불참하는 등 공식적인 토론회로 보기에는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에 모아진 관심은 지대했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잘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종하·법장 두 후보 측이나 청중들 대부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성이 결여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돼 후보별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 TV 등 교계 언론은 물론 MBC,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반 언론도 이번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쟁점

이날 토론회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말사주지 임명권을 본사에 이양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스님이 주지가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예정에 없는 질문을 던지자, 법장스님은 "그런 사람을 주지로 발령하면 본사주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봉을 피했다.

종단 내 남녀 성차별 철폐와 관련한 질문에 두 스님 공히 비구니 위상 제고를 내걸었으나 "비구니 8경계법을 철폐할 의향이 없느냐"는 토론자의 보충질문이 이어지자 종하스님은 "율사와 선사, 강사들과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고, 사회자가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순서를 넘기면서 법장스님은 답변하지 못했다.

특히, 비구니 위상 제고와 관련해 종하스님은 국장급 두 자리 정도를 비구니 스님 몫으로, 법장스님은 비구니 스님 전담 부서 설치와 국장급 인사를 공약했다. 그러나 13일 선출을 마친 교구 선거인단 240명중 비구니 스님이 4명

## 민감·주요 사안에 즉답 회피

## "여법하게 잘됐다" 두후보 만족

미리 작성된 질문에 대해 토론자가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에 대한 두 스님의 답변은 거의 대응소이었으며,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런 가운데 문중, 말사주지인사, 비구니 팔경법,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 등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와 토론자와 후보자 간에 의견이 맞서는 상황도 연출됐다.

먼저 종광스님(법장스님 선대본부 집행위원장)은 종하스님에게 "두 차례의 추대식을 했는데 지나치게 문중 중심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종하스님은 "절의가 옳으로 나간 것 같다"며 일단 제동을 걸고 "문중에서 서너사람이 물망에 올라 문중에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종하스님 측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종훈스님(종하스님 선대본부 총무)은

에 불과한 현실은 두 스님의 말과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진행상황

제한된 2시간에서 10분 정도 넘겨 토론회가 끝날 정도로 진행은 전반적으로 매끄러웠다.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으나 종하, 법장 두 스님이 단 한차례씩만 사회자의 제지를 받았을 뿐 무리는 없었다. 다만 토론자들이 질문에 앞서 본론과는 관계없는 언급이나 사회자가 진행 발언어나 할 말을 늘어놓으면서 토론회의 밀도를 떨어뜨렸다.

### ■두 후보측 반응

양측 모두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종광스님은 "질문강도가 낮았지만 그만큼 잘됐다"고 평가했고, 종훈스님은 "예정에 없던 질문이 한두 가지 있었으나, 문제없이 여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승려기본교육 전통과 현대 조화

종하 달라이라마 방한 중국 설득 필요

사이버대학 세워 전문성 살리겠다

법장 환영하나 외교문제 고려 신중히

### 2003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각 단당 승려·포교사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30세 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5매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1991.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2. 교육부 인준 고등학교 인준  
1993.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99명 자격 취득)  
1995.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1996.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1.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1. 9.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2. 중국 남경효정대학(사범대) 본과 개설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2002. 11. 중립삼화불교대로 확정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총립 삼화불교대

### 한 의 과 대 학

■ 석사·박사 약관명 모집

학과	학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영문)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계약공장, 교육병원 12, 계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선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 유효)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025-6798167 · 팩스 : 0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 전화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관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①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화불교대